

일감 스님의
암각화 기행



소년아!

소년아!
네가 주인이다
네가 태양이다

맑게 자라다오
밝게 자라다오

욕망에 눈이 흐린 어른들이
너의 맑은 눈을 보는 것만으로
너의 밝은 웃음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부끄러움을 알게 하여라

우리의 희망, 태양 소년아,
너는 우리의 주인공

바양울기, 바가오이고르

바가오이고르 지역으로 들어가면, 갈 때마다 신세를 지는 유목민 가족이 있다. 전체 가족 수가 십여 명이 넘는 대가족이다. 그곳에 두 번을 갔는데, 모두 겨울이었다. 평소에도 '여기가 도로다' 라고 도로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눈이 덮여 있어서 길을 찾아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 가족들이 살고 있는 언덕 바로 위에 암각화들이 있다. 그날도 눈이 살짝 쌓여 있어서 장갑으로 눈을 훑어가며 암각화를 찾았는데, 꼬마가 따라와서 여기저기 눈 속에 있는 그림들을 찾아 주었다. 나는 추워서 오리털 점퍼를 입고 두툼한 장갑을 꼈는데, 꼬마는 옷도 대충 입고 장갑도 끼지 않았다. 이리저리 나를 안내하면서 암각화를 찾아 주는데, 추운 기색은 하나도 없고 따뜻하고 밝은 미소만 가득하였다. 미안해서 내 장갑을 아이의 손에 껴 주면서 작고 귀여운 손을 감싸 보니 내 마음이 따뜻해졌다.

워낙에 외진 곳이라서 외지인이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한다. 특히 암각화를 보기 위해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정말 없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 여기 살고 있는 유목민들의 힘만으로 이 암각화를 지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지방 정부나 학술 단체 등에서 유목민들과 함께 암각화 보존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여기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이곳의 암각화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욕심 같아서는 저 어린 소년이 이곳의 암각화를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잘 지켜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그런 마음으로 아이에게 두 팔을 벌린 자세를 부탁하여 사진을 찍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욕망으로부터 이 암각화를 '네가 잘 지켜 줬으면' 하는, 나의 바람이었다.

연재를 마치며…

암각화를 통해, 불교 이전의 불교를 찾아보고 싶었고, 불교 이후의 불교를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부분은 한 발짝도 떼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곳은 너무 많이 벗어난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중도 정견의 혜안으로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졸고를 지면에 실어주신 현대불교신문사와 독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내내 청안하소서.



대원성보살의
선지식 '산중서신'
㉔ 진철 스님

남다른 원력으로 사신 고마운 선지식

사라진 스님의 편지글을 떠올리며 스님을 기억해 본다. 안타깝게도 스님의 서신을 고이 간직하지 못해 스님께 송구스러울 뿐이다.

진철 스님과의 첫 만남은 스님의 법문을 담은 녹음 테이프였다.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뵙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우연한 기회에 스님을 뵐 수 있었다.

시원시원한 말씀 한 마디 한 마디는 시대에 필요한 가르침으로,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들을 수 없었다. 녹음테이프로 스님의 법문을 들었을 때도 그랬지만 직접 뵙고 가까이서 육성의 법문을 듣고 나니 또 한 번 분에 넘치는 인연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던 기억이 난다.

스님은 평소 종단이나 신도들에게도 옳지 않는 일에는 쓴 소리로 아끼지 않았던 선지식이었으며, 대한청소년연합회 이사장과 대전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총재도 역임하신 훌륭한 포교사이기도 했다. 수행자로서의 마음가짐과 대중을 위한 법문은 우리들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다.

법문 녹음테이프로 첫 만남
보현봉사회 지도법사로 모셔

"마음가짐이 잘못된 생각으로 극락을 발원한다면 극락을 갈수 있을까요? 양심과 인격이 갖추어진 사람이 극락을 발원해야 극락을 갈 수 있는 것이고, 오염된 돈을 벌지 말아야 참다운 불자입니다"고 하신 법문이 아직도 생생하다. 아마 그 때 그 법문이 나를 비롯해 연꽃모임 도반들이 스님을 따르게 된 계기였다고 기억된다.

1994년 연꽃모임은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보현봉사회를 창립했다. 그 때 우리는 진철 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셨다. 그 당시 스님께서 주셨던 편지가 어쩌다가 지금은 사라지고 없어졌지만 그 내용만은 잊지 않고 있다.

"대원성 보살님!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모두가 은혜인데 내 이웃을 돌아보고 또 사회를 위해 봉사의 뜻을 세웠다고 하니 참으로 고마운 일이라 믿습니다. 칭찬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을 위하고 나눈다는 것, 베푼다는 것을 내가 먹고 쓰고 남는 것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먹는 것을 바로 나누어 먹을 수 있어야만 진정한 보시이고, 주었다는 마음 두지 않고 베풀어야만 진정한 보시의 공덕이 됩니다. 즉 상(相)을 내기 위해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봉사라는 말은 참으로 아름답고 순수한 진정성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르신을 대할 때에도 단순히 틀에 박힌 인사말로 인사하는 것보다 사람 몸 받기 어려운데 우리 살아 있는 동안 한 번이라도 더 많은 염불공덕으로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날 원력의 기도를 하게 해야 합니다. 대원성 가족 모두가 불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 더 훌륭한 모범 불자 가족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때 주셨던 글을 어쩌다 잃어버렸는지 너무 아쉽고 죄송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도 평소에 소탈하신 음성과 그 말씀들만은 가슴속에 그대로 남아 있다.

스님이 통도사 자비원 원장으로 계실 때 우리는 가끔 위문을 갔었다. 그때 우리는 스님의 운영 방식에 놀랐었다. 그 당시 자비원에는 할머니 50명, 할아버지 50명 총 100명의 어르신이 계셨는데, 어르신 모두 복장이 너무나 깨끗했다. 스님의 생각이었다. 그저 옷 하나 깨끗하게 입는 것으로 볼 일이 아닌 것이다. 늘 깨어있어야 한다는 의미였다.

어쩌다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스님을 뵈면 죄송해하고 "어서 죽어야 할 텐데"라고 할 때면 스님은 어르신의 손을 잡아주시며 "하루라도 더 살아서 염불 많이 해야 합니다"고 위로 하던 스님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립다.

뵐 때마다 스님은 불교의 미래를 위해 청소년불자를 키워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깨어있는 불자의 삶은 바로 내 이웃과 사회로부터 나 혼자가 아닌 모두를 위해야 밝은 미래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일찍 세상을 떠나신 스님을 잊지 못함은 스님이 남다른 원력으로 사셨기 때문이다. 그 고단함에 고개가 숙여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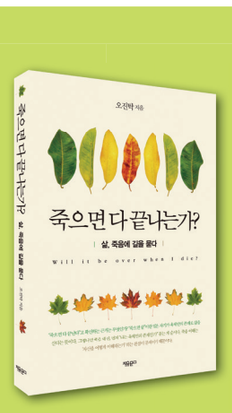
1995년 보현봉사회 1주년 창립기념법회에 참석한 진철 스님(둘째줄 좌측 6번째).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삶의 질을 바꾼다!

죽으면 다 끝나는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죽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육체적 죽음이 죽음의 실체인가?
불교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오진탁 지음/신국판/352쪽/값 17,000원



한국 사상사의 대표적인 철학논쟁!

불교와 유교의 철학 논쟁사

유불 논쟁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전개과정을 거쳤는가? 그 핵심 주제는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이 책은 유불 논쟁이 지니는 사상적, 정치적, 사회적 의미 등을 입체적으로 조망하였다.

도웅 지음/신국판 양장/480쪽/값 25,000원



무엇이 불교를 불교답게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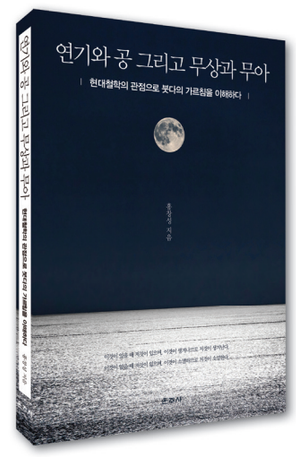
연기와 공 그리고 무상과 무아

현대에 맞도록 불교를 해석하고 이해하고
실천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책은 불교철학서이다. 믿음이 아니라 이치를 따져 교리의 옳고 그름을 밝혀보겠다는 말이다. 불교가, 붓다의 가르침이 '진리'라면 그것은 시대와 지역을 뛰어넘어야 한다.

이 책은 현대철학적 관점과 방법론으로 불교의 근본 개념인 연기, 공, 무상, 무아를 해석하고 논증하여 그것들이 진리임을 밝히고 있다.

홍창성 지음/국판/216쪽/값 12,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 자유문고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